

소비농 블랑의 여왕... 줄스 테일러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08

뉴질랜드 말보로 소비농 블랑은 맛이다 비슷비슷할 것이란 편견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말보로 소비농 블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풋고추나 자른 풀향을 넘어 열대 과일과 감귤 향이 화사하게 피어오르는 소비농 블랑이 이미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뉴질랜드 말보로 와인러 '줄스 테일러'의 와인메이커 줄스 테일러는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말보로 소비농 블랑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이나 빈야드마다 스타일이 나 뉘앙스가 모두 다르다"고 강조했다.

줄스는 "구세계가 양조법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제가 많다면 뉴질랜드는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이 많다"며 "특히 말보로는 와인 양조 역사가 길지 않아 전통을 답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양조하고, 새로운 방식에 도전해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인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줄스는 와인 업계에서 '말보로의 레전드', '퀸 오브 소비농 블랑'으로 불리는



줄스 테일러가 자신의 와인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와인은 왼쪽부터 '더 베타 하프 말보로 소비농 블랑', '줄스 테일러 말보로 소비농 블랑', '줄스 테일러 말보로 샤도네이', '줄스 테일러 말보로 피노 누아'.

/안상미 기자

이다. 말보로에 소비농 블랑 나무가 처음 식재되던 때에 태어났다는 필연적인 운명은 차치하더라도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자문을 구하러 올 정도로 소비농 블랑 전문가다. 특히 말보로 지역 스페셜리스트이자 여성 와인메이커로서도 선구자다. 지난 2021년에는 말보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뉴질랜드 올해의 와인메이커'로 선정되기도 했다.

줄스 스타일의 키워드는 과실이다. 이를 위해 포도를 기계로 수확한다.

그는 "30여년 전 말보로 소비농 블랑이라고 하면 초록 풀향이 특징이었지만 요즘은 열대과실의 풍미를 중시 여기고, 할라피노 페페 같은 복합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며 "보통 손수확이 좋다고 보지만 기계로 수확할 때 나는 상처나 나오는 즙 등이 과실 풍미를 더 좋게한

다"고 전했다.

'더 베타 하프 말보로 소비농 블랑'은 아주 연한 벚꽃 색깔에 잘 익은 노란 과실미와 신선함이 바로 느껴진다. 자른 풀향보다는 과실미가 두드러지고, 초록 뉘앙스가 있다고 해도 풀보다는 허브에 가까웠다.

줄스는 "말보로의 소비농 블랑이 어떻게 대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와인"이라며 "과실의 생생한 풍미를 최대한 끌어 올리고, 너무 높지 않은 산도와 잔당을 느끼게 양조해 직관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베타 하프는 줄스의 남편인 조지가 만든 와인이다. 조지 역시 와인메이커였지만 줄스를 위해 와이너리의 다른 업무를 담당해 왔다. '더 베타 하프(The Better Half)'는 조지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해 '줄스 테일러라는 유명한 와인 브랜드의 반쪽에 만족한다'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

'줄스 테일러 말보로 소비농 블랑'은 잘 익은 백도와 자몽, 패션푸르트 등이 단숨에 피어오르며 향만으로도 좀 더 복잡적이고 구조감도 있겠구나 싶은 와인이다.

줄스 테일러 말보로 소비농 블랑은 더 베타 하프보다 1년 정도 더 병숙성을 진행한다. 그래서 더 베타 하프는 2025년 빈티지, 줄스 테일러는 2024년 빈티

지였다.

같은 품종, 같은 양조 방식으로 만든 와인이지만 더 베타 하프가 소비농 블랑이 갖춰야 할 덕목을 두루 갖춘 '육각형' 소비농 블랑이라면 줄스 테일러는 말보로 특유의 명확한 캐릭터를 중심점으로 모여드는 '둥근 원' 같은 소비농 블랑이다.

'줄스 테일러 말보로 피노 누아'는 2007년부터 만든 와인이다. 모두 알다시피 피노 누아는 쉽지 않은 품종이다. 재배와 양조 모두 까다롭다. 줄스 역시 다양한 클론으로 재배해 구조감을 살리고, 저온 침용으로 피노 누아만의 매력을 살리고 있다. 손이 많이 가는 것에 비해 생산량도 많지 않지만 테루아와 기후에 따라 그때그때 와인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묘미는 와인메이커로서는 포기하기 힘든 즐거움이다. 2023년 빈티지는 균형감을 중시한 만큼 생동감 있는 과실과 매끈한 질감의 타닌이 잘 어우러진다.

줄스는 와인 양조 과정에서 자연 효모를 쓴다.

그는 "구매 효모는 정제되고 정해진 향과 맛을 내지만 자연 효모는 통제가 쉽지 않아 일정 부분 리스크는 있지만 다른 구조감과 질감, 다른 풍미를 줘서 와인을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주말은 책과 함께

영화관서 만나는 오페라... 메가박스 '유럽 3대 시리즈' 상영

전국 9개 지점서 3월까지 매달 한편씩

메가박스가 유럽을 대표하는 오페라 무대를 극장 스크린으로 옮긴다. 메가박스는 '유럽 3대 오페라 극장 시리즈' 상영을 확정하고 클래식 콘텐츠 브랜드 '클래식 소사이어티'의 본격적인 출범을 15일 알렸다.

국내 영화 산업이 구조적 침체에 직면하며 관객 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메가박스는 극장 사업의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연 실황과 콘서트 라이브 뷰잉, VR 콘텐츠, 대관 중심 운영 등 비(非)영화 콘텐츠 비중을 확대하며 집단지·현장적 경험을 제공하는 극장만의 차별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오페라 상영 역시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번 시리즈는 유럽 3대 오페라 하우스로 꼽히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 안 데어 빈 극장, 잘츠부르크 대극원 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 실황을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과 입체적인 사운드로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한 편씩 '마술피리', '노르마', '마리아 스투아르다'를 선보이며, 각 작품은 3주간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전국 9개 메가박스 지점에서 상영된다.

첫 작품은 1월 15일 개봉하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마술피리'다. 1869년 개관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오페라 하우스로 평가받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선보인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를 현대적 무대 언어로 재해석했



메가박스 유럽 3대 오페라 극장 시리즈

/메가박스

다. '유령의 집', '석탄 창고', '젠틀맨 클럽' 등 상징적인 공간을 넘나드는 연출로 선과 악의 대비를 감각적으로 풀어낸다. 상영 기간은 1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2월에는 안 데어 빈 극장의 '노르마'가 관객을 만난다. 1801년 개관한 안 데어 빈 극장은 수많은 명작 오페라가 초연된 유서 깊은 공연장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여사제 노르마의 사랑과 복수, 종교와 이성 사이의 갈등을 현대적 이념 충돌로 재해석했다. 특히 세계적인 소프라노 아스믹 그리고리안이 처음으로 노르마 역을 맡아 관심을 모았다. 상영은 2월 5일부터 21일까지다.

시리즈의 마지막은 잘츠부르크 대극원 극장의 '마리아 스투아르다'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핵심 무대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거대한 회전 무대와 무빙 코러스 연출을 통해 영상·조명·무대 디자인이 결합된 압도적인 시각 효과를 구현했다. 스코틀랜드 여왕 마리아 스투아르다와 잉글랜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정치적 대립과 감정의 충돌을 밀도 있게 그려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화를 말로 바꿀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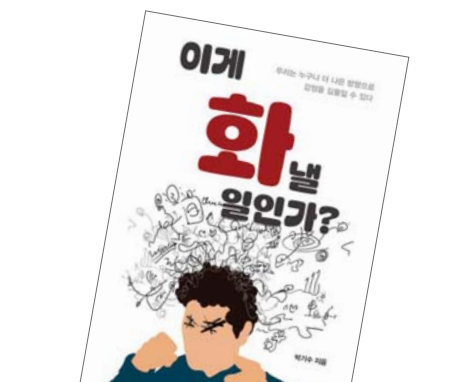
화는 순식간에 사람을 다른 존재로 바꾼다. 분명 사소한 계기였는데, 돌아보면 관계는 상처투성이 되고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나아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년 같은 방식으로 화를 반복한다.

박기수 작가의 도서 '이게 화낼 일인가?'는 화를 없애야 할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화가 어디서 시작되고, 왜 통제되지 않으며,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해부한다.

저자는 화를 '진화가 만든 생존 시스템'으로 규정한다. 위협에 맞서기 위해 몸을 전투 상태로 전환시키는 본능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더 이상 맹수나 외적을 상대하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위협은 줄었지만 자국은 늘었고, 화는 종종 과잉 반응으로 튀어나온다.

이 책은 화를 개인의 성격 문제로 축소하지 않는다. 생리학적으로는 뇌와 호르몬의 작용을, 심리적으로는 사고 패턴과 인지 왜곡을, 사회적으로는 디지털 환경과 집단 분노를 짚는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분노가 증폭되는 '에코 챔버' 현상에 대한 분석은 지금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해법 역시 단순한 '참아라'식 처방이 아니다. 저자는 화를 다스리는 핵심으로 '감정의 언어화'를 제시한다. 화라는 덩어리 안에는 억울함, 수치심, 무력감 같은 더 취약한 감정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 감정을 분리해 인식하고 말로 번역할



이게 화낼 일인가?

박기수 지음/예미

수 있을 때 비로소 화는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된다. '멈추기-바라보기-말하기'의 3단계 연습, 심호흡과 명상, 인지행동치료와 마음챙김 등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나와있다.

기자, 공직자, 교수를 거치며 30년간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저자의 이력은 책 전반에 현실감을 부여한다. 화를 이상화하지도, 도덕적으로 몰아붙이지도 않는다. 다만 화를 다루는 능력이 개인의 성숙도를 가르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짚는다.

감정이 곧바로 행동이 되는 사회에서, 화를 말로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와 삶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296쪽, 1만9000원.

/신원선 기자



▲이란, 영공 한때 폐쇄... 국제선 운항 '뚝'

/사진 뉴시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난민 전형' 신설... 5명 장학생 선발

▲독일 국방부 "그린란드 다국적 순찰군에 독일군 대표 13명 파견"발표

▲美 미네소타주서 또다시 총격 사건 발생... 30대 여성 사망 후 일주일만

▲루브르, 非유럽인 입장료 인상... 3만7000원→5만4000원

▲인도 델리에 '한국교육원' 개원...한류 타고 한국어 보급·유학생 유치